

진화론 교육의 범죄

다윈=헤겔 진화론의 정체와 통일사상

와타나베 히사요시

일본의 생물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생명의 기원 - 지구상에서 무생물로부터 생물의 발생을 말한다. 현재는 과학이 놀라운 진보를 이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¹⁾

이 문장은 우리들의 문화가 어떠한 것일지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생명의 기원이라는 외포(畏怖)자체를, 외포(畏怖)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정신이 문제이다. 다음에 생명은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당연해서 그 이외에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되어 있다. 더욱이 그 전제 아래 연구를 진척시켜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생명의 기원의 수수께끼는 해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기술은 전형적으로 유물론적 문화(정신구조)의 산물이지만, 이것을 쓰고 있는 필자는 자신의 발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유물론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수라고 하지 않는다. 단지, 이것은 하나의 사고방식 - 인류사에서 볼 때 지극히 예외적 사고방식 - 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아마 통일사상의 <일원이성론(一元二性論)>, 즉 하나님에서 통일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성상)과 물질(형상)이 현실세계에서 일단 따로따로 나타나 그것이 공감을 일으켜서 재통일되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으리라.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서술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물 교과서(적어도 검정교과서)는 모두 이러한 인용문처럼 어떤 의문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유물론적으로 생명이나 생명의 역사를 다루려고 한다. 이것을 과학의 방법으로서 자연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 그 존재자체의 원인도 포함해서 - 자연계의 내부에 있다고 하는 과학자의 전제(대개는 무자각의 전제)이다. 현재로서 자연주의만이 학문의 유일하게 정통인 방법(동시에 철학)이라고 하고 생물학의 세계에서 자연주의를 취하는 다윈 진화론만이 공인 이론이 되어 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이론으로서 결함이 있고 그 논리는 오류라고 강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오랜 세월의 잠재적인 불신이 최근 제방을 무너뜨린 것 같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큰 화제가 되어 세력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과학자의 사이에서 일어난 <인텔리전스 디자인(intelligence design)> 운동이다. 학문세계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는 쉽게 믿을 수 없지만, 다윈니즘(Darwinism)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오랫동안 터부(taboo)시 되어왔다. 최근 드디어 ID(intelligence design)운동의 주동자가 된 Phillip Johnson의 <다윈의 재판> (Darwin on Trial, 1993)으로부터 시작하여, Antony Latham의 <벌거벗은 황제-파헤쳐진 다윈이즘> (The Naked Emperor: Darwinism Exposed, 2005)등의 서적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고 이러한 다윈 체제로부터 생겨나 청소년 교육에서 심각한 것은 관행화하고 있는 생물 교과서의 기만과 은폐이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진화를 증명한다고 칭하는 가짜 증거가 오랜 세월을 걸쳐 당당하게 게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지적한 것은 ID운동의 중심인물의 한 사람인 Jonathan Wells의 <진화의 성화 상> (Icons of Evolution, 2000)이지만, 웰스는 <과학은 지금, 다윈 이

론의 기둥이 되어 있는 많은 것이 허위로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생물 교과서는 여전히 그것들을 진화의 현실의 증거로서 계속 게재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은 이과교육 방침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²⁾ 라고 하면서 놀람과 함께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들은 웰즈와 함께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What's going on here?)>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웰즈는 구미나 일본의 생물 교과서에 공통되는 10항목 정도의 기만을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는 <생물학상의 가장 유명한 위조>라고 말하여지면서, 학생은 하나도 알 수 있게 되지 않고, 교과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는, 그리고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헤켈의 배아의 비교 그림을 첨부해보자고 한다.

지금, 필자의 눈앞에 6종류의 현행 고교 교과서 <생물 II>가 있지만, 모두가 헤켈의 배아의 비교 그림을 게재하고, 그의 유명한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법칙>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언급하고 있다. 설명문의 방법은 상당히 대담하게 이것을 진리로서 해설하는 것, 말을 흐리게 해서 단정을 피하는 것,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에서 전혀 변함은 없다. 그림 쪽도 간신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변함이 없다고 해도 좋다.

-교과서의 그림-

그 하나 (동경서적)의 설명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 <개체의 발생과정을 생물의 사이에서 비교하면, 그 초기의 형태가 아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태아에게도 아가미(아가미)나 꼬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것도 생물이 공통된 선조에게서 진화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 설명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고 하며 얼버무리고 있지만, 그림은 분명히 아가미와 꼬리를 가진 헤켈의 130년 전(1874)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헤켈의 <초기의 배아> 그림이 작위적인 위조인 것은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의 생존 시에 알려졌던 (결단코 부주의나 해부의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미에서, 단지 그것을 추종하는 일본 등에서 교과서에 계속 실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세기의 수수께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Michael Richardson에 의한 현실의 배아 사진(1997)과 비교해 보면, 그 나머지의 차이에 대해서 누구라도 경악할 것이다. (웰즈는 이것이 <초기의 배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 현재 교과서의 사용되고 있는 헤켈의 가짜 태아 그림과 미첼 리처드슨(Richardson)에 의한 현실의 배아 사진-

리처드슨(Richardson) 자신도 <헤켈이 자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 그림은 존속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스터리이다>라고 한다(New Scientist, 9/6/97). 그는 또한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 <이것은 과학계의 위조의 최악의 것 중 하나다.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되었던 인물이 고의로 사람을 잘못된 방향에 이끌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충격이다. 나는 이것에 화가 난다.> (The Times (London), Aug.11,1997, interview with Nigel Hawkes)⁽³⁾

내가 조사한 한 진화론자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헤켈의 <초기의 배아>의 그림(판화)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 학자는 없다. 누구라도 고의로 손질을 가한 것은 인정한다. 단지 진화론자가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설령 그렇더라도, 헤켈이 증명하려고 한 것은 옳다 (그러니까 용서된다)>는 것이다. 웰즈에 반론하는 유명한 진화론자 P. Z. Myers도, 반 ID투사 Eugenie Scott 여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또 대표적인 진화론자 (故) Stephen J. Gould도, <대다수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현대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그림이 존속하게 된 1세기 동안 무신경적인 반복 사용에 대하여 우리들은 놀라는 동시에 아주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일은 몇 십 년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Michael Behe는 창조론자 (반과학적 성서 맹신자)이다>라고 했다고 한다.⁽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생물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압도적 다수는 생물학자에겐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흥미를 가져서 혼자서 조사해 보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들 대다수는 전문가가 살그머니 알고 있는 진상을 모른 채, 속은 채 일생을 보내는 것이다. 쉽게 상상되는 것은 이것이 태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그림이 머리의 구석에 있는 여성은 물고기 태아 등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태아를 가볍게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몇 백만이라는 무력한, 태어나기 전의 어린이들의 살육에 대해서, 혹은 적어도 잘못된 과학적인 근거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은, 이 발생반복설이라는 거짓에 있음을, 우리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져서 주장할 수 있다> (Henry Morris)⁽⁵⁾

발생반복설, 즉 우리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라는 격언적 <법칙>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전문학자의 증언은 그것을 증명하는 헤겔의 그림이 위조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처음부터 헤겔은 배아의 그림뿐만 아니라, 위조의 상습범이며, 양심적 과학자와는 좀 먼 존재이었다. Russell Grigg에 의한 웹사이트 <에른스트 헤겔-진화론의 선교자, 기만의 사도> (Ernst Haeckel: Evangelist for evolution and apostle of deceit)에 따르면, <<대륙에서 다윈(의 경비견)>이라든가 <독일의 헝슬리>라고 불러, 에른스트 헤겔은 진화론을 유포시키기 위해서 속임(fraud)에 속임을 더한 과학자로서 유명하다.⁽⁶⁾

[그러나] 헤겔의 수상쩍은 활동에서도 가장 유명한, 혹은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인간의 배이는 다른 포유동물과 같이 최초 물고기와 같은 아가미를 가지고 나중에 원숭이와 같은 꼬리를 가지는 일련의 단계를 경과하는 것이라는 전혀 잘못된 설을 유포시킨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헤겔은 두 사람의 다른 과학자에 의한 배의 그림을 사기적으로 바꿔서 예의 배의 그림을 위조하고, 저서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The Natural History of Creation, 1868)에 실은 것이지만, 당시 라이프치히 대학의 유명한 비교 발생학자였던 Wilhelm His에 의해 이것이 폭로되었다. 이것에 의해 독일(Germany) 과학계의 분개가 너무나 커졌으므로, 헤겔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게 되었고, 1909년 1월 9일자 뮌헨의 신문 *Münchener Allgemeine Zeitung*에 다음과 같은 투서를 해서 위조를 변명을 했다(영역으로부터 번역).

<나의 배아의 그림의 얼마 안 되는 부분(아마 100종의 6개에서 8개)은 실제로 (Dr. Brass - 규탄자의 한 사람 - 가 말하는 의미로)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즉, 본보기로 적당한 예는 매우 불완전 또는 불충분하므로, 연결된 발달의 경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가설에 의해 껍을 메우고 비교적 종합에 의해 결핍을 재구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곤란할지 도공자가 어느 것 정도 실패를 할 지 모르는 것은 발생학자 밖에 모르는 것이다.>

Grigg는 <헤겔이 손질을 가한 개와 인간의 배아의 그림을 원본과 비교해 보면[비교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채록은 하지 않는다], 헤겔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 사실을 사칭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이것은 그의 부끄러움 자체이며 가공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려는 시도인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 Gunter Rager에 따르면 <헤겔은 자신의 투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생물발생의 법칙> - 반복설(反復說)의 헤겔의 자칭 - 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몇 개의 그림을 발표했지만, 모두 원본과 캡션(caption)에 임의 수정을 더한 것이었다.> <이 속임은 지금 몇 개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같은 판목을 3회까지 사용하고, 각각의 판화 때문에 달랐던 캡션(caption)을 발명했다.> <생물발생의 법칙>과 데이터를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트릭(trick)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벽주의자이다. (G. Rager, *Human Embryology and the Law of Biogenesis* in *Rivista di Biologia/ Biology Forum* 79, 1986, pp. 451-52.)⁷⁾

요컨대 헤겔은 살아있는 동안 학자로서 자격 없음으로 낙인 찍혀서 반복설(反復說)은 물론 옛날의 학설로서 신용을 잃고 있다. Ashley Motague에 따르면 <반복설(反復說)은 1921년, Walter Garstang 교수의 유명한 논문에 의해 때려 눕혀졌다. 그 이후, 어떠한 진실한 생물학자도 이 반복설(反復說)을 이용한 적이 없다.> (Motague-Gish Princeton Debate, 4/12/80)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진리인 것처럼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Grigg은 이렇게 고발한다. 반복설(反復說)을 입증하려는 전적으로 부정직하고 지독하게 악랄한 근거와, 그것이 당초부터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머니의 태내에서 자신의 과거의 진화를 반복한다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은 지극히 최근까지 일반학교나 대학에서 진화의 증거로서 가르쳐지고, 지금도 통속적으로 대다수의 과학의 책에 실려 있다.

‘지극히 최근까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현재에도’라고 해야 하며 ‘통속적인 과학 책에’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생물 교과서’에 당당하게 실려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의 모든 교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독일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머쥐었다’(Grigg)는 것은 왜 그런가? 마이클 리처드슨(Richardson)에 의하면 ‘헤겔의 위조 고백은 이 그림이 1901년 ‘Darwin and After Darwin’의 책에 사용되어 널리 영어 생물 교과서에 게재된 이후부터 완전히 잊어버렸다.’(Elizabeth Pennisi, Michael Richardson, “Haeckel's Embryos: Fraud Rediscovered,” Science 277(5331):1435, Sep.5, 1997)⁹⁾

도대체 왜 일단 많은 학자로부터 지탄을 받아 낙인찍힌 근거 없음으로 매장된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활하여 그것이 오늘날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소박한 의문으로서 정확한 배아의 사진 정도는 교과서에 실으면 어떨까, 교과서라는 것이 (해석은 어떻든) 일차 자료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윈 체제하의 교과서에서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헤겔의 그림을 리처드슨의 사진으로 변하게 하거나 하면, 아주 중요한 아가미도 꼬리도 사라져 버린다. 원래 헤겔의 발생반복설은 인간에게도 아가미나 꼬리를 가지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진화론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의미가 사라진다. 이것이 반드시 헤겔의 그림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 배아의 비교 그림은 생물학 역사 이전의 흥미 있는 학설로 소개하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 아닐까? 물론, 그것이라면 우리들도 별로 불만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론자가 승인하지 않는다. 다윈 전제체제에서 이것은 살아있는 현실의 이론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이다.

헤겔의 위조 그림은 개인적 공명심에 의해 학자가 날조한 것이지만, 잘못되어서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렸다는 말은 없다. 그렇다면 벌써 옛날에 도태되어 버렸을 것이다. 흔히 뉴스에서 ‘조직전체의 범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볼 때 그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더욱 무섭게 뿌리 깊은 범죄, 이른바 현대문화 바로 그것이 만들어낸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우선 헤겔이라는 광신적 다윈 지지자가 역사상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교의 전파에는 바울(Paulos)이라는 인물이 불가결했다. 그리스도교는 사실상 바울의 교회라고도 말하 여진다. 마르크스주의가 단순한 철학으로서 영역을 초월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써 세계제패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레닌(Lenin)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다. 이것을 마르크스-레닌주의(Marx-Leninism)라고 말한다. 에른스트 헤겔이라는 독일인은 다윈 진화론에 대하여, 정확히 마르크스에 대한 레닌의 역할을 달성했

다고 말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해 다윈이즘은 세계 제패의 체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소위 Darwinism을 현실에서 Darwin-Haeckelism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헤겔이란 ‘다윈의 불독(bulldog)’이 없으면, 다윈이즘은 터무니없이 제출해 본 것에 불과한 학설에 머무르고, 오늘날처럼 신성 불가침의 교의는 아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헤겔이라는 남자는 과학자의 가면을 쓴 정치적 책략가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레닌을 그대로 닮아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라는 적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모략도 신성화된다고 했다. 헤겔도 그의 신봉하는 사상적 대의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위조도 용서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헤겔의 모습은 지금까지 인용한 증언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필자의 논술이 의거하는 Richard Weikart, *From Darwin to Hitler: Evolutionary Ethics, Eugenics, and Racism in Germany* (2004)에 의해 명확해진다. 이 책은 다윈이즘으로부터 사회다윈이즘, 민족주의(인종차별), 우생학이라는 사상을 거쳐서 나치즘에 이르는 독일 사상의 계보를 뒤쫓은 것이지만, 그 중심인물은 헤겔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윈(Darwin)에서 히틀러(Hitler)까지>의 결말 문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윈이즘 그것 자체가 홀로코스트(holocaust, 유대인 대학살)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윈이즘, 특히 사회다윈이즘이나 우생학이라는 그 변종이 없으면, 히틀러나 그의 나치 추종자들은 그들 자신과 그 협력자들에게 세계 최대의 잔학 행위의 하나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칭찬되어야 할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윈이즘, 혹은 적어도 다윈이즘이 있는 자연주의적 해석은 도덕을 거꾸로 세우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¹⁰⁾

헤겔에 휘말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즉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세계정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지쟁탈 전쟁이라는 것이 당시 세계의 상식이였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 열강은 인종이나 인간에게 근원적 우열이 있어서, 우수한 자는 살아남고 열등한 자는 멸망하는 것이 당연(자연법칙)하다는 과학이론을 간절히 원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에 원동력을 주었던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며, 특히 이것을 생물학 이론에서 정치 이론, 윤리 사상(진화론 윤리)에까지 향상시킨 다윈-헤겔 진화론이었다. ‘정치학은 응용 생물학이다’라는 것은 나치스의 선전에 자주 이용된 헤겔의 명언(?)이다.

즉,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열강)은 사기꾼 학자 헤겔을 영웅으로서 추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원했다. 그 일환으로서 저 배아의 비교 그림이 맞았다고 생각된다. 이 그림의 의미하는 것은 종이라는 것의 구별은 본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시킨 자연계에는 비약이라는 것은 없으며 완만한 형태의 변화(종의 이행)가 있을 뿐 - 이것은 사실에 반한다. - 라는 것이 다윈 진화론의 본질이며, 따라서 <종의 기원>에는 *Natura non facit saltum*(자연은 비약하지 않고)라는 라틴어의 격언이 몇 번이나 나온다.

모든 생물에 비약(질적 단절)은 없지만 명확한 구별은 있다(실제로 되어 있다)는 다윈이즘의 설명은 인종차별(인종의 근원적 우열)사상의 경우에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다윈의 진화를 증명하기 위한 저 배아의 비교 그림이 왜 날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의미와 수수께끼를 몰래 살피기 위해서 헤겔의 저서 <창조의 자연사>의 권두언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헤겔에 의한 또 하나의 쇼킹한 그림¹¹⁾을 비교해 보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헤겔의 본심과 헤겔 지지자의 본심이 눈에 확실히 들어올 것이다.

-인종과 원숭이의 그림-

헤겔은 이 그림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장 고도로 발달한 동물의 마음과 가장 발달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사이에는 그저 약간의 양적 차이가 있는 것뿐으로서 조금도 질적 차이는 없다. 그리고 이 차이는 가장 낮은 인간과 가장 높은 인간의 마음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작다. 혹은 가장 높은 동물과 가장 낮은 동물의 마음의 차이보다도 작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¹²⁾

이러한 발언은 1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에겐 매우 쇼킹하여 비상식적으로 들리지만, 당시로서 그 정도 이상의 것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다른 독일 지식인의 몇 개의 발언을 여기에 보이고자 한다.

[백인우월이론] 백인, 즉 코카서스(Caucasus) 인종은 지구를 지배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알프렌(Alfuren), 호텐토트(Hottentot)이라는 가장 저급한 인종은 큰 폭의 파멸로 향하고 있다. (Ludwig Buchner)¹³⁾

[절멸전쟁의 긍정] 과학자는 자연에서 옳은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즉, 전쟁, 그리고 특히 절멸의 전쟁은 - 왜냐하면 자연계의 전쟁은 모두 그것이기 때문에 - 자연의 법칙이며, 그것이 없으면 생물세계는 오늘날의 상태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학자는 이 확신으로부터 한 걸음 전진하여 이 보편적인 절멸의 전쟁이 유익한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Gustav Jaeger)¹⁴⁾

[스페인의 남미 원주민 학살을 변호하여]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과정이다. 만약 우리들이 지질학자의 - 그리고 현실에 다윈 이론을 받아들이는 지질학자의 -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인간 종족의 소멸이라는 것은 일찍이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이 소멸한 것처럼 자연의 과정이다. (Oscar Peschel)¹⁵⁾

[우생학=열등한 자 처분] 태어난 이래 계속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무거운 짐으로밖에 될 수 없는 인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을 양육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전혀 무익한 실체로 오히려 유해한 소업이다. (본 대학교수 Hugo Ribbert)¹⁶⁾

우생학은 예를 들면 열등 인간의 강제적 단종과 같은 형태로 당시 유럽에서 진지하게 생각되어 있었던 방법이지만, 최후의 Ribbert 발언이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우생학 사상에 가까운 사고방식이 헤겔에도 있었던 것을 <Darwin에서 Hitler까지>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벽두 독일 지식인의 사고방식은 우리들에겐 무서운 것으로 느껴지며 실제로 무서운 사상이지만, 그들은 악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다윈 진화론이라는 자연법칙에 필적한 선으로서 사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volutionary ethics(진화론적 윤리)이라는 말에서 명시한 것처럼, 그들에게 선이라는 것은 진화의 법칙을 따르는 것, 혹은 진화의 법칙의 실현에 협력하는 것이며, 진화와 정신을 가지지 않는 물질적 맹목적 힘의 자동 작용이었다.

민족을 말살하라, 우생학을 지지하라, 그것은 인류 전체를 향상시켜 보다 건강체가 되기 위한 진화의 법칙에 필적한 방법이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니체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독일 사상계의 키워드이었다.

헤겔이 당시 독일 사상계의 중심적 존재이었던 것은 그가 1906년 Monist League(일원론자 연맹)를 결성하고, 이것을 지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와이카트에 의하면 “Monist League의 주된 목적은 종교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 - 그 공격 대상은 첫째 그리스도교와 칸트 철학이었다. - 을 일원론적인 세계관으로 바꿔 놓는 것이었다. 진화론에 근거한 자연주의적 윤리가 일원론적 세계관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되었다. - 그 기관지 창간호에 실린 기조논문은 이 연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의 하나가 청소년을 위한 세속적 도덕 교육을 촉진하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⁷⁾

이 경우, 일원론은 물론 유물 일원론인 것이다. 이 연맹에는 상당한 회원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이론 무장을 하고 청소년 교육의 사명감을 가진 조직의 지도자로서 헤겔이 군림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눈감아 줄 수 없다.

Monist League의 기세는 제1차 대전 후, 1919년의 헤겔의 죽음과 함께 약해진 것 같다. 그러나 정치 사상가 헤겔과 다윈=헤겔 진화론은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열강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그것은 나치즘도 식민지도 과거의 것이 된 오늘날 여전히 요구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미국의 ID 이론 학파와 다윈이즘 체제 측의 논쟁(투쟁)을 몇 년 전부터 관찰하고 있지만, 다윈이즘 체제 측의 필자와 같은 비판자에 대한 이상한 적의에 그것을 느낀다. 그것은 분명히 학문의 수준을 넘어선 정치사상이다. 현존 학자의 이름으로 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필자에게 헤겔과 다윈이즘 측의 충수라고 해야 할 리처드 도킨스가 이중적으로 보인다.

Monist League의 철학, 즉 다윈 진화론이라는 ‘과학’에, 자기들의 세계 제패의 윤리적 근거를 찾아내려는 야망과 같은 것은 오늘도 암류(暗流)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헤겔의 배아의 위조그림을 비판 없이 계속 교과서에 살아있다는 놀랍고도 불합리한 배경에는 Monist League의 망령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통일사상은 원래 공산주의의 이론 무장을 붕괴시키기 위한 이론으로서 그 성격이 현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사상은 다윈=헤겔 진화론을 타파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필자는 통일사상 이외에 그것에 대처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상체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헤겔의 유물일원론에 대한 ‘一元二性論, 이것은 첫머리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설명만으로도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발생했다는 교과서 기술의 우열함을 타파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한, 소위 ‘진화론 윤리’라는 일견 그럴 듯한 윤리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종교 교의나 종교 사상이 아닌 엄밀히 구성된 통일사상의 논리체계가 요구될 것이다. ‘진화론 윤리’는 인류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사상이지만, 어떤 것이 인류의 건강인지, ‘건강’의 정의는 유물일원론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도 통일사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생학’은 인위적으로 인간 사회를 컨트롤해서 우수한 종(씨앗)만을 남기고, 열등 종은 경우에 따라서 소멸시키는 정치적 처방을 생각한 것이지만, 지금 이 개념은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우리들의 문화는 이것을 자신 있게 부정하는 철학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러한 다윈=헤겔리즘의 망령에게 지배되는 패거리의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사상은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개성진리체’라는 명확하고 중요한 개념,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의 조화적 관계개념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윈=헤겔 진화론의 역사적 의미도 통일사상 체계에 비출 때 비로소 그 허상이 밝혀지는 것이다.

注

(1) 『新生物 I B ? II』 (??出版) p.406.

(2) ジョナサン?ウエルズ 「不適者生存——? 科書に生き?ったニセモノ」 ("Survival of the Fake", *The American Spectator*, December 2000/ January 2001, 「創造デザイン??」 H.P.
(<http://www.dcsociety.org/id/publication/06034.html>)

(3) School Textbook Fraud: Embryology: The "biogenetic law" by Steve Rudd
(<http://www.bible.ca/track/textbook-fraud-embryology-ernst-haeckel-biogenetic-law.htm>)

(4) ジョナサン?ウエルズ前?論文

(5) Ernst Haeckel: Evangelist for evolution and apostle of deceit by Russell Grigg

(<http://www.answersingenesis.org/creation/v18/i2/haeckel.asp>)

(6) 同上

(7) School Textbook Fraud: Embryology: The "biogenetic law" by Steve Rudd

(8) 同上

(9) 同上

(10) Richard Weikart, *From Darwin to Hitler: Evolutionary Ethics, Eugenics, and Racism in Germany* (Palgrave: Macmillan, 2004) p. 233.

(11) Ibid. p. 107.

(12) Ibid. p. 90.

(13) Ibid. p. 191.

(14) Ibid. pp. 167–68.

(15) Ibid. p. 188.

(16) Ibid. p. 96.

(17) Ibid. p. 66.